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표

**** 우리나라 상표출원인들의 상표선호도 조사결과 「로얄」 및 「ROYAL」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동향은 시대변화를 반영한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상표로 「그린」, 「사이버」, 「인터넷」, 「닷컴」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표가 출원되어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되면 「샘표」 간장, 「진로」 소주, 「무궁화」 밀가루 등과 같이 반세기 가까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장수하는 상표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상표는 출원되어도 등록되지 못하거나 또는 등록되었더라도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사례도 많다.

상표는 간단 명료하여 쉽게 기억되고 호감을 줄 수 있어야 소비자들로부터 오래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상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떤 상표가 가장 많이 출원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 특징인이 특정 상표를 다수 출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출원건수가 아닌 출원인 수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일유사한 명칭의 상표를 출원하였는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48년 이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원된 상표는 한글(한자상표 포함)로 된 상표의 경우 외래어 상표인 「로얄」과 「크로바」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권 내에 외래어상표보다 순수 한글상표가 숫적으로 우세하나 순위에서 외래어 상표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영문상표(한글 및 한자와 결합 상표 포함)에서는 「ROYAL」의 강세가 두드러져 「ROYAL」은 영문상표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상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10위권 안에는 누구에게나 쉽고 익숙한 단어인 「CROWN」, 「CLOVER」, 「RAINBOW」, 「FAMILY」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수출원상표의 변화를 1990년을 전후로 하여 상위 10위 상표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글상표의 경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을 기점으로 상위 10위 이내에 외래어상표와 한글상표의 수에 큰 변화가 없으나 1990년 이전에 「로얄」과 「크로바」와 같은 외래어 한글상표가 각각 1, 2위를 차지 한데 비해 1990년 이후에는 「하나로」나 「아리랑」과 같은 순우리말 상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여 출원상표의 주체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력상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북표」, 「곰표」, 「별표」등과 같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상표들이 종합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출원빈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하나로」, 「피노키오」, 「엄마손」, 「한빛」 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한편 「로얄」, 「크로바」, 「무지개」, 「아리랑」등은 장수출원상표로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문상표를 살펴보면 「ROYAL」이 시대흐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선두를 차지하여 가장 선호하는 상표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로얄(ROYAL)이 갖는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품위있는 상품의 느낌을 줄 수 있

다는 선입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0년을 기준으로 「ROYAL」을 제외한 「CROWN」, 「CLOVER」 「RAIN- BOW」등 10 위권 내의 상표가 모두 권외로 밀려나고 「OK」, 「BIO」, 「GREEN」등 환경친화적이거나 건강과 관련있는 상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문상표의 경우 한글상표에 비해 시대적 유행에 더욱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상표출원동향은 사회환경이나 유행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출원에 있어 순수 한글의 멋을 살린 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커질 것이며 「로얄」 및 「ROYAL」과 같은 상표의 우위가 지속되면서도 글로벌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를 반영하는 상표가 나타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쾌적한 식문화를 위한 무연구이기”

- 국내 요식업계에서 사용하는 구이장치에 있어 연기발생과 냄새를 줄이는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 이들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해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배기덕트나 후드를 통해 연기를 강제배출시키는 기술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연기 자체를 정화하여 재순환시키는 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청결업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위생 및 환경문제에 업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연기를 필터로 정화하는 여과방식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통해 불고기, 갈비 등 한국

고유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보다 청결하고 외국인의 취향에도 맞는 다양한 구이장치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 무연구이기 방식 및 시장규모

○ 구이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원인

- 육류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열원에 의해 연소되는 경우
- 육류가 구이판에 눌러붙어 연소되는 경우
- 연료의 연소가 불완전한 경우 등이 있음

○ 무연구이기의 방식

- ① 배기덕트 또는 구이기 주위의 흡입공을 설치, 송풍팬에 의해 강제흡입하여 배출하는 방식(이하 ‘강제배기방식’이라 한다)
- ② 구이기 상부에 에어커튼막을 형성시켜 연기의 분산을 차단하는 방식(이하 ‘에어커튼방식’이라 한다)
- ③ 발생된 연기를 흡입, 필터로 정화하여 재순환시키는 방식(이하 ‘여과방식’이라 한다) 등 3가지 방식이 대표적인

○ 시장규모

- 구이기 전체 시장은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중 무연구이기가 120억원 내외 차지
- 30여 중소기업체가 난립하여 시장경쟁이 치열

II. 특허출원 동향분석

- 86년~95년(10년간) 기간 중 무연구이기에 대한 출원건수는 총 29건으로 이 중 59%에 해당하는 17건이 강제배기방식임
-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무연구이기에 대한 출원건수 38건 중 여과방식이 27건으로 71%를 차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출원건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90년대 후반에 여과방식이 급증한 이유
 - 종래의 강제배기방식이 설치비가 많이 들면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 여과방식은 발생한 연기를 구이기에 흡입공을 통하여 흡입, 이를 세라믹필터나 물을 통과시켜 불순물을 걸러내고 재순환시킴으로써 청결유지, 실내환경 개선 및 외기 오염방지 효과가 있음

III. 향후 과제 및 전망

- 앞으로도 무연구이기 분야에서 발생한 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포집 또는 여과하는 장치의 개발과 특허출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연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이판 및 연소부의 성능개량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통해 불고기, 갈비 등 한국 고유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잡으려면 보다 청결하고 외국인의 취향에도 맞는 다양한 구이장치의 개발이 중요

중불법복제 악아라 각국 비상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BBC방송은 독일과 영국의 통관당국이 최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DVD 플레이어들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또 필립스,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의 가전제품 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DVD 플레이어중 몇몇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VD 플레이어뿐 아니라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등 불법복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업계의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반 비디오등의 불법 복제로 지난 2001년 관련업계가 입은 손실이 1억5,066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중국산 복제품범람으로 각국 피해 속출BBC방송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필립스, 소니 등의 업체들은 중국업체들이 자사기술을 불법 도용한 데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의 몇몇 기업들은 정부에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선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공업협회도 지난달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 중국에서 일체모터사이클이 대량 복제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측은 중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1,100만대의

모터사이클 중 878만대가일본의 디자인을 도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다른 나라로 수출, 자국에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각국 정부도 “단속 강화 해라” 촉구미국, 일본 등 정부가 나서 중국에 불법 복제 단속을 요구하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다.**

최근 미국의 조지프 파보치 미 무역대표보는 중국의 불법복제와 위조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도 불법 복제품에 대한 단속강화를 중국에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측은 또 미국 및 유럽연합 정부와 중국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협력을강화할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복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을WTO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했으나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출처 서울경제

국내 EPG업체 특허권 “비상”

미 쟁스타사가 국내 EPG(전자적 프로그램가이드)업계를 대상으로 EPG분야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EPG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한중인 쟁스타의 제임스 브룩스 이사는 이달 초 국내 케이블TV 디지털방송센터 구축업체인 브로드밴드솔루션즈(BSI)와

자사의 IPG(Interactive Program Guide)에 대한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일부 한국업체들과 케이블TV방송(SO)들이 자사의 EPG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케이블TV업계는 3개 EPG업체가 20여개 SO들을 대상으로 상업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쟁스타가 이 가운데 특정 회사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관련 업계는 자체개발 솔루션을 보유한 A사와 B사가 쟁스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사는 현재 서울 핵심지역을 비롯해 7~8개 SO에서 상업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B사는 서울 북부지역와 수도권외의 6~7개 SO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이들 2개사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EPG를 개발했으며 지금까지 어떤 외국사로부터도 특허권 침해 논란을 제기받지 않았다.

또다른 업체 C사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의 T사와 저작권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솔루션을 들여왔다”며 “T사가 쟁스타와 저작권 시비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EPG기술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는 것과 쟁스타가 시시콜콜한 기술까지도 특허를 남발해 왔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IT기술기반이 풍부한 국내는 로열티를 주고 외국 것을 사오느니 자체 개발한다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사방에 “특허의 밧”을 깔아놓은 쟁스타에 걸려들 소지를 갖고 있다.

A사와 B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허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한 쟁스타는 계절

스럽다 못해 악명이 높다.

이 회사는 별의별 기술을 특허로 신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EPG 화면에서 도입하고 있는 중횡축 분할과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명 배치방식도 이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

심지어화면 상의 광고와 메뉴의 사소한 위치까지도 잼스터의 특허 그늘에 묶여 있을 정도다.

잼스타는 미 엔터테인먼트 기술라이선스 분야 선도기업 중 하나로 소비재, 전자, 위성, 케이블,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0여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미국내 AV기술 분야에 17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800건의 특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한 현재 420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190여건은 미국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케이블TV업계는 이번 잼스터의 발언이 당장 특허권 분쟁을 제기한다는 메시지로 보지는 않는다.

국내 EPG서비스는 이제 도입단계이고 이를 잘 아는 잼스터가 자사 솔루션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해 운을 뚫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체개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내 EPG업체들과 SO들은 잼스터의 파상공세에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무선결제 특허분쟁 잦다

국내 무선결제 시장에 “특허 대란” 조짐이 보

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새로운 개념의 무선결제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본 비즈니스 모델에서부터 핵심 요소기술에 이르기까지 이를 둘러싼 각종 특허분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시큐베이(대표 신영철)는 최근 SK텔레콤·KTF 등 이동통신업체와 조흥은행 등 금융권이 제공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바코드 결제 서비스의 핵심인 LCD 바코드 스캐너 기술에 대한 자사의 실용신안권리를 동종 업체인 대화바코드가 침해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신영철 사장은 “어려운 벤처 환경에서도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LCD 바코드를 읽는 스캐너를 개발, 작년 11월 마침내 특허에 준하는 실용신안권리를 획득했다”며 그러나 “최근 이를 이용한 무선결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유통업체들이 가격이 싼 대만으로부터 유사 제품을 수입, 시장에 무임승차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대화바코드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정식답변을 들었으나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금명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현재 “핸드폰의 LCD 바코드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과 그 전자결제 방법 및 현금지급 방법”에 대한 특허도 우선심사 대상에 올라 있어, 이 특허가 정식 등록될 경우 이동통신업체 및 금융권과의 비즈니스 모델 분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바코드 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창에 바코드를 띄우고 이를 이용해 각종 쿠폰이나 상품

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LCD 바코드 스캐너는 바로 이 바코드를 휴대폰을 읽어들이는 기술로 관련서비스에 있어 필수라는 평가다.

현재 이를 이용해 조흥은행이 휴대폰 입출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도 이미 이를 이용한 다양한 쿠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자지불서비스 전문업체 페이뱅크(대표 장중혁)와 SK텔레콤간 무선결제 시스템 및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권 논란도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심화되고 있다.

이 회사 장중혁 사장은 “지난해 경고장을 보낸 이래 아직까지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협력사들과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2차 경고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본격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무선결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대해 업계에서는 다른 인터넷 관련 특허와 마찬가지로 무선결제 특허 역시 그 범위와 권리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분쟁을 일으켜서라도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몇년간 출원된 각종 유무선 인터넷 관련 특허들이 최근 심사과정을 거쳐 정식특허로 속속 인정되고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한국과 중국간 특허출원건수가 늘어나면서 양국간 “특허협력”이 강화된다.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과 중국 왕징촨(王景川) 지식산업국(知識產權局) 청장은 제주에서 “8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특허심사에서 “공동 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에 공동 출원된 발명특허 등의 심사에서 중복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

양국은 또 특허 출원시 출원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매체에 의해 교환,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92년 한중 수교 후 한국기업의 중국 특허출원은 92년 195건에서 2000년 2140건으로 증가했으며 국가별 출원건수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출처 동아일보

투신사 “특허펀드” 희비

“따라하지 마. 다쳐.”

한 투신사가 공동여 개발한 독창적인 펀드를 경쟁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베끼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우선판매권” 제도가 속속 결실을 거두고 있다.

투신협회가 구성한 상품심의위원회는 이달 초 한국투신운용이 개발한 “자녀미래설계 장기채권투자신탁”에 대해 1개월 동안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했다.

韓-中 특허 공동심사 추진

일종의 특허권을 준 셈이다.

▽ 펀드의 특허권 = 이 펀드는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을 채권에 투자한 뒤 원금과 수익금 등을 투자자에게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장기 투자 상품.

부모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 자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투신업계 관계자 5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5명으로 구성된 상품심의위원회는 이처럼 독창성 투자비용 투신 및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권리를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된 후 8일까지 4개 펀드가 권리를 얻었다.

미래에셋투신운용이 개발한 “미래에셋 시스템-캡 펀드”는 지난달 14일부터 판매돼 916억원어치가 팔렸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상품은 주식에 투자해 일정한 수익을 올리면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전환형 펀드인데 파생상품을 이용해 손실의 일부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엇갈린 희비=너무 새롭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는 상품도 있다.

LG투자증권은 1월 22일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LG Macro System 혼합투자신탁”의 우선 판매권을 얻었지만 상품을 팔지 못하고 권리기간인 1개월을 넘겼다.

이 상품은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거시 경기지표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펀드.

회사측은 이 펀드에 투자할 기관투자자를 물색했지만 “전례가 없는 모험적인 펀드에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삼성투신운용의 “Silver Best 혼합투자신탁”은 때를 잘못 만난 케이스.

회사측은 삼성증권 등 판매회사 여러 곳과 펀드 판매를 준비했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올라 주식형 펀드가 인기를 끌자 판매회사들이 “주식형부터 집중적으로 팔아야 한다”며 출시를 늦추자고 주장했다는 것.

LG투신운용은 투자자를, 삼성투신운용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발특2002/5